

전북도, 학교급식 단가 현실화

소규모 학교 1인당 급식단가 300~400원 인상 고등학교 학교급식 도비 부담률 20% 상향 조정

전북도가 새해 들어 학교급식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300~400원 인상을 하기로 했다.

학교급식은 전북도와 시·군이 50%를 지원하고 있는 도교육청과의 대표적인 협업사업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식비단가 400원과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 급식단가 300원을 각각 인상하여 그동안 도

심권 학생들에 비해 유통비용 때문에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구성이 어려운 점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또한, 전북도는 시군의 학교무상급식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무상 지원하는 고등학교 급식비 도비 부담율을 20%로 상향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전북도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 도비 15%

시군비 35%, 교육청 50%로 지원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도비 부담율을 20%로 상향 조정하고, 시군 부담율을 30%로 하향하여 시군의 부담을 경감해줄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학생 1인당 70원을 인상하여 202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60%까지 끌어 올릴 방침이다.

현재,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율(금액 기준)은 쌀을 포함하여 55%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확대하여 성

장기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친환경농산물 경작 농가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물론,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학교 무상 급식은 "단순히 무상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농촌의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했다.

/김진성 기자

수협중앙회장 선거

SNS 이용 선거운동하다

부안선관위, 동의자 고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수협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선전하는 동영상 SNS를 이용, 선거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B씨를 23일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수협중앙회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동영상 제작하여 카카오톡으로 선거인 90명에게 전송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의하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에 한해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월 22일에 실시하는 수협중앙회장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위탁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2월 9일)부터 선거일 전일(2월 21일)까지이며, 선거인은 총 92명이다.

/김진성 기자



사람의 연탄 나눔 봉사

전북도 김승일 행정부지사와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 전북도청 공무원노조 최민식 위원장 등 40여명은 23일 전주 송암마을에서 '사람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삼락농정 보람찬 농민복지 '박차'

전북도가 올해 농민 복지 체감도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도는 삼락농정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과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두 사업은 2015년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사업을 제안해 2016년에 처음 도입·시행되어 4년째 이어오고 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20세~75세 미만의 지원 자격을 갖춘 여성농업인에게 직업적 자긍심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연간 15만원 예산을 카드로 지원한다.

특히, 작년에 20~70세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2만원을 지원한데 비해 금년에는 대상범위를 20세~75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15만원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 복지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3월31일까지 하고, 미용실, 안경점, 화장품점 등 37개 업종에서 쓸 연말까지 사용하면 된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공동급식 기반시설을 갖추고, 20인(人)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선정된 마을은

전북도, 생생카드 지원사업 농번기 공동급식 등 범위 확대

연간 40일 이내에서 공동급식에 필요한 1일 기준 조리원 인건비 4만원과 부식비 4만원을 40일간 32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지난해 300개 마을에서 금년 500개 마을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2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업을 희망 하는 마을은 2월 28일까지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들 사업을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로 가사와 영농활동을 겸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이 경감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오늘 전북에 중국관광객 온다

군산항 통해 학생·학부모 등 140여명 방문
전북도, 도 청소년 교육여행 상품 운영
JTV 견학·도청 방문 전북생생TV 방송체험도

전북도의 대중국 유일 지향통로인 군산항을 통해 중국학생과 학부모 등 140여명의 단체관광객이 전북을 방문한다.

군산항과 중국 석도항을 오가는 (주)석도국제훼리(본사 소재지 군산시, 대표 김상겸)를 이용한 중국단체여행객 140여명이 24일 9시 군산항에 도착, 전북 청소년과 문화공연 교류, 전북도청 견학 및 전북생생TV 방송 직업교육체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여행상품은 지난 해 4월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서 개최된 석도훼리 주6항 운항기념 전라북도 관광설명회를 통해 중국청소년 교육여행상품으로 판매된 것으로 이들은 여행상품으로 전북을 찾은 2019년 첫 단체관광객이다.

전라북도 청소년 교육여행상품은

(주)석도국제훼리, 중국국제교류단체 「중국산해국제문화예술교류중심」이 전북도와 공동으로 기획한 교육여행으로 중국초등생 58명과 학부모 등 관계자 80명 등 140여명이 25일까지 전북도내 청소년과 문화공연교류, 전북도청 방문 및 방송체험, 한지만들기 체험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전북도 관광총괄과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군산과 중국 석도항을 주6회 운항하고 있다"며 "대중국 유일한 지향 통로인 군산항을 이용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위해 2월(14~15)에도 약 170여명이 예약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청소년교육여행, 문화공연 및 스포츠 교류 등 특수목적 관광단 유치를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지역상품권 할인 125억 확보

전북도, 국비 전국 최대규모
군산시, 3000억원 발행 계획
작년에 이어 계속 할인 판매

전북도가 지역상품권 할인 발행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국비 125억원을 확보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안부에서 올해 상품권 발행계획이 있는 전국 1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64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대상을 1차 선정 결과 전북도가 이같이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연 2조원 발행을 목표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 연간 발행액의 4%, 연간 800억원을 2차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고향사랑상품권을 운영 중인 군산, 김제, 임실, 완주, 장수 5곳과 올해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남원, 무주, 진안, 고창, 부안 5곳 등 총 10개 시군의 발행 예정액 3,123억원을 대상

으로 4%인 125억 원을 확보한 것이다.

상품권을 이미 운영 중인 지자체는 상반기에 연간 수요의 60%, 신규 지자체는 연간 수요액의 50%인 74억원을 1월중 빠르게 교부할 예정이다.

특히 군산시의 경우 지난해 국비 71억원을 확보 910억원 발행 10% 할인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봤으며, 올해는 3,000억원 발행을 계획으로 국비 120억원 확보로 지난해에 이어 계속해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어 군산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 지역 내 금융기관 등 판매 대행점에서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음식점, 이·미용실, 주유소, 서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유근주 도 일자리정책관은 "지역상품권은 지역의 자금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소득증대 효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주민들의 상품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유통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범죄신고 112 · 화재신고 119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